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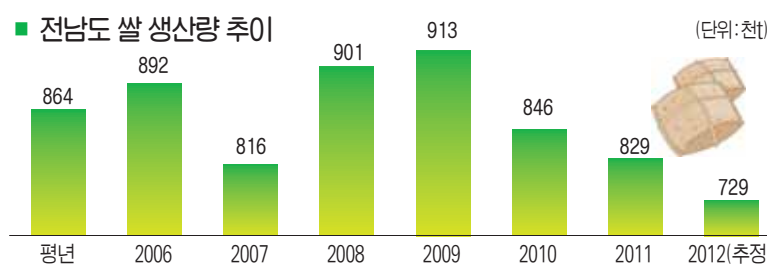
전남 올 쌀 농사 32년만에 최악 흉작

생산량 12% 줄어 들 듯...재배면적 29% 태풍 백수 피해

태풍이 휩쓸고 간 전남 들녘의 올해 쌀 생산량이 32년 만에 최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련기사 3면>
15일 통계청이 지난 9월 15일 작황을 기준으로 발표한 '2012년 쌀 생산 예상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쌀 예상생산량은 138만t으로 지난해 154만t 보다 10.2% 감소했다.
특히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전남지역은 82만9040t에서 72만9498t으로 12.0%나 줄었다. 이는 쌀 재배면적 감소율(0.9%)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전남지역의 쌀 생산량 감소 비율은 전국 평균(-3.5%)을 웃돌았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 지난 1980년 68만9000t 이후 32년만 최저 생산량이다. 최근에 가장 저조했던 해는 지난 2007년 81만6147t으로 80만대를 유지했다.
올해는 또 태풍 '볼라벤'과 '텐진' 등 잇단 태풍으로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도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남지역 벼 생산 단위면적 10a당 생산량은 481kg으로 지난해보다 15kg 줄고, 평년보다 500kg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논벼가 11.3% 감소했고, 밭벼는 27.9% 감소했다.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크게 준 것은 잇단 태풍의 직접 피해 지역인 해안가에서 벼가 수정이 이뤄지는 시기에 낱알이 여물지 못한 탓이다.
특히 순천, 해남, 완도, 진도, 감진, 고흥, 보성 등의 시·군에서는 백수(白穗·벼 이삭마름) 피해가 극심했으며, 전남 전체 벼 재배면적의 2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풍해 필지 비율은 약 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농민연대 관계자는 "정부



가 조사한 것보다 태풍 피해가 더욱 심각할데, 정부는 피해 논 1ha당 대과비(벼 대신 파종하는 작물의 씨앗대금) 110만원과 사료비 4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한다"고 "백수 피해 벼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올해 광주·전남지역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일 광주 광산구 분량 들녘에서 한 농가가 벼를 수확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서 변호사 흥기피습

4년전 재판 불만 사건 의뢰인...40대 자수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사무장을 흥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기사 6면>
광주동부경찰은 15일 4년 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서모(50)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흥기를 휘두른 조모(4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서모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 변호사와 사무장 정모(47)의 허벅지를 각각 3차례와 2차례 찔렀다. 서 변호사 등은 사건 발생 직후 사무실 여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2008년 서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던 자신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아닌 집행유예를 받은 뒤 불만을 갖고 법원 앞에서 수십 차례 1인 시위를 해왔다. 조씨는 콩나물 가공공장을 운영했던 지난 2007년 업체 내 분쟁으로 무고,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됐다가 1심 재

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주 남평으로 도주한 조씨는 초등학 교 동창인 한 경찰관의 권유로 자수했다.
한편 서 변호사는 강진 출신으로, 18세에 상경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구두닦이로 주경야독하며 1984년 서울대 경제학과 입학,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7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2007년 광주고법 판사를 지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알림

광주일보사 해외 테마여행·연수 사업 추진
호주·뉴질랜드 동물복지 체험



광주일보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주·전남 지역사회 모든 영역의 글로벌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고품격 해외 테마여행·연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0년 10월 일본 나오키마 명품 미술여행을 추진, 호평을 받은 바 있는 광주일보는 문화예술은 물론 각 분야마다 지역의 전문종사자,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수준 높은 테마여행·연수사업을 기획, 실시해 지역의 역량을 한차원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는 금년도에는 이른바 '축산혁명'으로 불리고 있는 '동물복지 해외연수'를 실시합니다. 축산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농가를 방문·직접 체험하는 연수로 지역 축산업도약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해외여행의 새장을 열게 될 광주일보의 테마여행·해외연수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연수지역: 호주, 뉴질랜드
■ 연수기간: 11월 21일(수)~27일(화) 6박7일
■ 연수대상: 전남 시·군 축산업 담당 공무원, 축산농가, 축산관련업 종사자
■ 접수기간: 10월 26일(금)
■ 주관: 광주일보사, (주)KJ투어
■ 참가문의: 광주일보 문화사업팀 (062)220-0555, 018-693-6604

'상품권 깡' 박광태 前시장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비자금 일부 개인 용도 사용 확인

박광태 전 시장이 재직시절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20억원이 넘는 특정 백화점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5일 박 전 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억 여원 어치의 상품권을 현금화해주고 5억 원대 상품권을 광주시에서 구입한 것처럼 속여 자신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시정직원의 형 이모(4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145차례에 걸쳐 20억여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 2억여원의 손실을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은 또 속칭 '상품권 깡'으로 생긴 나머지 18억 원 가운데 민주당 당비(4100만원), 골프비(7600만원), 공관인 아파트 운영비(7000만원) 등 1억87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매년 13억~18억원이 책정되는 각 실국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용처 및 현금사용 가능비율이 제한돼 있어 박 전 시장이 정상적으로

로써 곤란한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쓰기 위해 법인카드를 거액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우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에서 상품권을 통해 지자체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적발됐고, '상품권 깡'을 통한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처음 적용했다"며 "다만 박 시장의 나이와 개인적 처부를 위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광주 모 백화점 위탁 운영업체는 지난해 광주시를 상대로 이 씨가 사간 상품권 외상거래 대금 5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 학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www.tphtoyota.com
NAVER 비교할수록 토요타
비교할수록 토요타
연비 좋은 차에 파워를 기대하면 안 된다?
연비도, 파워도 모두 놓치지 않았다
캠리 하이브리드, 동급 최고 연비 23.6km/l, 3,000cc 이상의 파워
차가 커지면 연비는 떨어진다? 연비와 파워가 동시에 좋을 수는 없다? 캠리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전에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세단에 최고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만나 더욱 강력해진 캠리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세단 역시 비교할수록 캠리입니다.
TOYOTA Smile for Tomorrow
[토요타 브랜드 런칭 3주년 기념] 고객 감사 특별프로모션
36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CAMRY/CAMRY HV/PRIUS)
토요타 광주 062-371-8383 지하철 운전역 3번 출구앞